P1 : 식습관 및 영양조사

【P1-1】

충청일부지역 남녀 중학생의 음주실태와 음주행동

정 은 희†
서원대학교 교양학부

우리나라는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정서적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, 청소년 음주도 흡연이나 약물 등 다른 비행에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. 그러나 청소년 음주행위는 건강에 해로운 또 다른 약물과 물질의 오 · 남용을 불러오는 길잡이 노릇을 하며,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심리적 갈등이 유발되기 쉬운 청소년기에 흥분이나 거친 행동 등 각종 비행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, 이 시기에 잘못 길들여진 음주 습관은 일생동안 계속되고, 후에 술로 인한 질병에 걸리거나 알코올 의존자가 되어 일생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.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주실태와 음주행동을 조사하고자 충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학교 2~3학년 학생 415명을 대상으로 음주실태와 음주행동에 관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. 조사결과, 조사대상자의 34.9%, 남학생의 38.5%, 여학생의 31.2%가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하였다. 처음 술을 마셔본 시기에 대한 설문에는 전체 음주경험자의 48.3%가 이미 초등학교 때에 술을 마셔보았다고 답하였으며, 중학교 1년 때에 21.4%, 2년 19.3%, 3년 때에 11.0%로 나타났다. 특히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때의 음주경험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더 일찍부터 음주에 노출되고 있으며, 여학생의 경우는 과반수이상인 57.7%가 중학교 때에 술을 처음 마셔본 것으로 나타났다. 처음 술을 마시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남녀별로 큰 차이를 보여 남학생은 제사 후, 호기심, 여학생은 호기심, 친구의 권유, 스트레스 해소의 순으로 나타났다. 6개월 이상 만성적으로 마시고 있다고 답한 경우가 9.7%나 되었으며, 특히 여학생의 경우는 11.1%정도가 1년 이상 만성적으로 술을 마셔온 것으로 나타나 특별한 지도와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. 또한 한번에 마시는 술의 양에 대한 조사에서 남, 여학생 모두 1~2잔 정도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적으로 소주 한 병 또는 그 이상을 마신다고 답한 경우도 17.3%나 되었으며, 여학생의 경우가 23.8%로, 남학생(12.2%)보다 높게 나타났다. 술을 누구와 함께 마시는가에 대해서는 45.5%가 '친구와 함께 마신다' 고 답하였으며, 그 다음이 '부모와 함께 마신다' 로 나타났는데, 혼자서 마신다는 경우도 8.3%나 되었다. 여학생의 경우 친구와 마신다는 비율이 61.9%로 남학생(32.9%)보다 높게 나타났으며, 남학생의 경우는 친구들과 함께보다는 부모들과 함께 마신다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나 남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. 술을 마시는 이유로는 주로 '심심해서' 또는 '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' 이며, 화가 나거나 불안할 때 술을 마시고 싶다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. 술의 위해에 대해서는 '모른다' 또는 '알아도 상관없다' 고 답한 경우가 87.3%로 높게 나타나 알코올로 인한 건강상 위해에 대한 청소년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.

【P1-2】

익산지역 성인의 성별과 거주지역에 따른 식행동 및 식품 섭취빈도 조사

주은정 · 박은숙[1)]
우석대학교 식품영양학과, 원광대학교 가정교육과[1)]

본 연구는 20세 이상의 성인 1689명을 대상으로 성별(남자 742명, 여자 947명)과 거주지역(동지역 1109명, 읍?면지역 580명)이 식행동과 식품 섭취빈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. 대상자들의 거주형태는 아파트 51.3%, 단독주택 38.8%였으며, 가족 구성은 핵가족 84.3%, 확대가족 13.8%였고, 경제수준은 먹고 살 정도 60.8%, 힘들다 32.4%, 잘산다 6.8%였다. 대상자들의 신장, 체중, BMI는 남자 171.6 ± 5.98 cm, 69.5 ± 8.64 kg, 23.6 ± 2.64 kg/m^{2}였으며, 여자 160.5 ± 5.01 cm, 55.2 ± 6.87 kg, 21.4 ± 2.59 kg/m^{2}이었다. 전체 대상자의 비만도는 정상이 56.4%였으며 저체중이 6.7%인 반면 과체중과 비만이 19.6%와 17.2%였다. 비만도는 여자가 남자에 비하여 저체중자가 많아서 성별에 차이가 있었으며, 읍 · 면지역이 동 지역 보다 과체중과 비만이 많아서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. 1주일간 매일 아침을 먹는 경우는 전체 대상자의 57.7%였고 전혀 먹지 않는 경우도 10.7%에 달하였으며, 여자와 동 지역이 남자와